

[포토] “작업중지권은 생명지킴권, 안전보장권”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노동과세계 사진팀 | © 승인 2024.04.24 21:06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노동안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또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과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입법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혁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혁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약식집회에서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416연대 박승렬 대표.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최정주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백승호 (세종총남본부)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혁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추모 싸이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종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추모 사이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추모 사이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의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추모 사이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종로2가 사거리에서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박종회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행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추모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지키는 경찰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본 집회 사회는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에 앞서 투쟁을 외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강현수 건설산업연맹 노도아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문화노동자 가수 장현호 씨가 문화공연을 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현미향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박선유 인천지역 중대재해사업단 운영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대회 결의문은 김도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분부장과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약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을 출발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가는 행진과 집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 작업중지권을 쟁취하는 한편 산안법과 산재법 밀실 줄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이정식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사진=송승현



노동과세계 사진팀 nose.kctu@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